



삼목에스폼(주)

018310 | KOSDAQ |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구분 : 정기주주총회 | 일시 : 2013. 03. 29 | 장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70-3 삼목에스폼(주) 시화공장 회의실

Executive Summary

▶ 삼목에스폼은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8기 재무제표의 승인의 건과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새로이 설치될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선임, 또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삼목에스폼과 관계회사인 에스폼(에스엠에서 에스폼으로 사명 변경), 동일제강 등과의 거래 관계 및 소유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삼목에스폼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내이사 후보인 김준년의 재선임과 사외이사 후보 명재원의 신규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안한다. 아울러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주제안에 따라 상근감사 선임의 건이 제안된 상황에서 이사회의 일방적 제안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회가 추천한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배구조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고 정당한 주주제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료되므로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안한다.

Agenda & Recommendations

No	의안	이사회	네비스탁
제1호	제2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50원		
제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반대
제3호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김준년 재선임	찬성	반대
3-2	사외이사 하우성 신규선임	찬성	찬성
3-3	사외이사 명재원 신규선임	찬성	반대
3-4	사외이사 임완순 신규선임	찬성	찬성
제4호	감사위원회 감사 선임의 건		
4-1	감사위원 하우성 신규선임	찬성	반대
4-2	감사위원 명재원 신규선임	찬성	반대
4-3	감사위원 임완순 신규선임	찬성	반대
제5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제6호	감사 선임의 건		
6-1	감사 이관영 신규선임	반대	찬성
제7호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반대	찬성

[의안 세부 내역]

▶ 제1호 의안 : 제28기 (2012.01.01 ~ 201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예정 내용 :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50원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삼목에스프롬은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제안하였다.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기존에 정관에서 감사에게 부여된 의무와 권한을 감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신규 조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감사위원회 설치와 함께 개정된 상법을 반영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재무제표의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내용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등 정관에 상당한 변경을 예고하였다. 그 중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30조 (이사의 선임)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관 제39조의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관 제40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인 자를 위원회를 대표할 자인 위원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결의방법, 의사록에 관해서는 제36조, 제37조, 제38조를 준용한다.

정관 제44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선임)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이사	김준년	74.04.25	2	재선임	삼목에스프롬(주) 대표이사	삼목에스프롬(주) 대표이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사외 이사	하우성	58.01.13	2	신규선임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대표이사	새시대회계법인 고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사외 이사	명재원	74.09.16	2	신규선임	한영회계법인 감사본부	도원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사외 이사	임완순	55.09.21	2	신규선임	동남회계법인 대표이사 신도리코 감사	동남회계법인 이사, 회계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감사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 여부	사외이사 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감사위원	하우성	58.01.13	2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대표이사	새시대회계법인 고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감사위원	명재원	74.09.16	2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한영회계법인 감사본부	도원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감사위원	임완순	55.09.21	2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동남회계법인 대표이사 신도리코 감사	동남회계법인 이사, 회계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5(2)	6(3)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1,000,000,000	1,000,000,000

▶ 제6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 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상근 감사	이관영	63.04.16	3	신규선임	재중국 서릉상사 총경리 영진무역 대표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제6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은 주주제안으로 2012년 2월 13일 주주총회소집결의에서는 상정되었으나 이후 3월 14일 주주총회소집결의에서 철회되었다. 하지만 정당한 주주제안이고 감사위원회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하여 주주총회에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7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이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220,000,000	220,000,000

※ 제7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감사 선임의 건이 철회되면서 함께 철회되었으나, 제6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과 동일한 사유로 상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 보수한도액은 임의로 전기와 동일하게 가정하였다.

Financial Profile

Business Description

▶ 건축용 거푸집류인 알루미늄폼, 갱폼, 유로폼류 등을 제조, 판매, 임대, 수출

Company Snapshot

Industry : 산업재 > 건축자재

시가총액 6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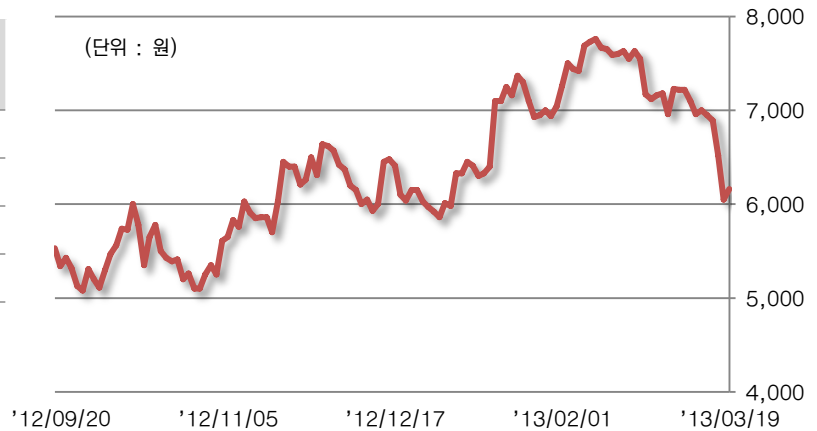
발행주식수 (보통/우선) 9,800,000 / -

의결권 있는 주식수 9,436,737

주가(액면가) 6,160 원 (500원)

기준일 : 2013.0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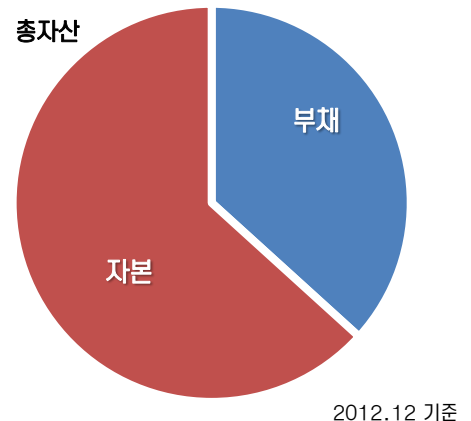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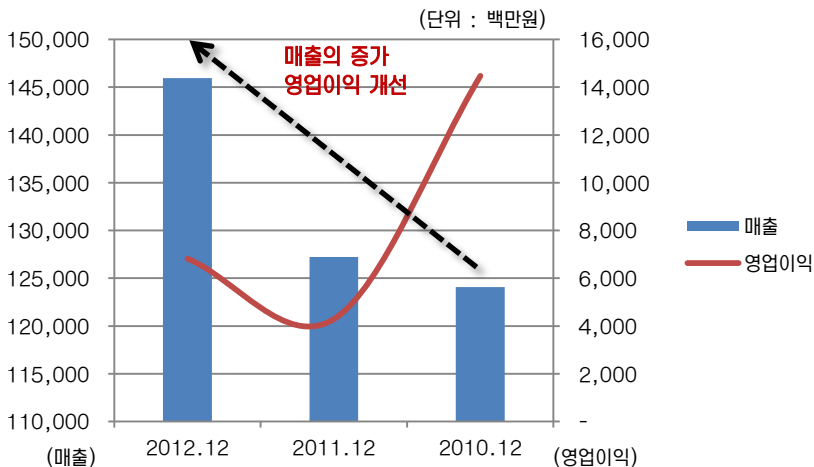
Stock Performance



Financial Highlight

구분	2012.12	2011.12	2010.12
자산총계	151,111	126,496	153,545
부채총계	55,502	35,530	63,478
자본총계	95,609	90,966	90,068
자본금	4,900	4,900	4,900
매출액	145,951	127,224	124,061
영업이익	6,819	4,292	14,474
당기순이익	4,988	3,039	10,515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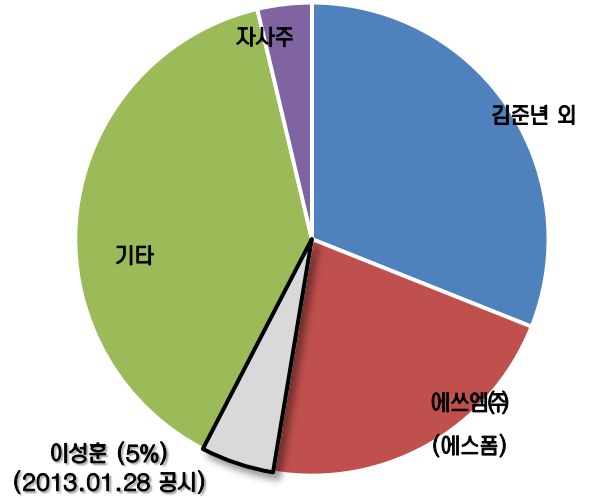


Governance Profile

Shareholders

주주	주식수	지분율
김준년 외	3,042,258	31.04
에스엠(주) (에스폼으로 사명 변경)	2,115,075	21.58
기타	4,279,404	43.67
자기주식	363,263	3.71

김준년 외 = 김준년+이영자+엄석호
2012.9월말 기준



Board Profile

성명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업무	주요경력	재직기간	비고
김준년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총괄	GS칼텍스 外	7년	
김교현	이사	등기임원	상근	관리	동일제강(주) 外	23년	김준년의 삼촌
이영자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	4년	김준년의 어머니
이규환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동국제강(주) 外	5년	
김영수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한외종합금융(주) 外	4년	
엄석호	감사	등기임원	상근	감사	정우개발(주)	25년	김준년의 특별관계자

2012.09.30 기준

[제1호 의안] 제2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전년 대비 자산은 약 246억원 증가하여 총 자산은 약 1,511억원 수준, 부채는 약 200억원 증가한 555억원 수준이며 이익잉여금 증가에 따라 자본 총계는 약 46억원 증가한 956억원 달성
- 매출은 약 1,46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7억원 증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25억원 증가하여 68억원 달성,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19억원 증가한 50억원 달성
- 배당은 전년과 동일한 주당 50원 배당
- 재무제표의 작성 및 배당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음
- 단, 유동자산 대부분이 매출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금및현금성자산이 2억원에 불과하여 유동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 단기차입금이 41억원에서 203억원으로 급증하여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 가중 예상

Vote Requirement : 참석주주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수의 승인

Discussion

Proposal

▶ 제2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구분	2012년	2011년
유동자산	43,324	37,269
비유동자산	107,787	89,227
자산총계	151,111	126,496
유동부채	41,940	20,783
비유동부채	13,563	14,747
부채총계	55,502	35,530
자본금	4,900	4,900
이익잉여금	87,609	83,066
자본총계	95,609	90,966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1년
매출	145,951	127,224
매출원가	123,446	109,497
매출총이익	22,505	17,727
판매비와관리비	15,686	13,435
영업이익	6,819	4,292
당기순이익	4,988	3,039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1년
현금배당	472	472

단위 : 백만원

주당 배당금 [2012년] 보통주 50원
[2011년] 보통주 50원

재무제표의 변화

▶ 자산 구성의 변화

삼목에스프의 자산 총계는 전년 대비 약 246억원 가량 증가하여 전체 자산 규모는 약 1,511억원 수준이다.

구분	2012년	2011년	증감
유동자산	43,324	37,269	6,055
현금및현금성자산	235	712	-477
매출채권	39,001	34,447	4,554
재고자산	2,493	1,582	911
비유동자산	107,787	89,227	18,560
유형자산	103,362	85,035	18,327
자산총계	151,111	126,496	24,615
유동부채	41,940	20,783	21,156
매입채무	14,619	10,092	4,528
단기차입금	20,269	4,119	16,150
비유동부채	13,563	14,747	-1,184
이연법인세부채	10,917	12,040	-1,123
부채총계	55,502	35,530	19,972
자본금	4,900	4,900	-
이익잉여금	87,609	83,066	4,543
자본총계	95,609	90,966	4,643

단위 : 백만원

삼목에스프의 유동자산은 433억원 수준으로 유동자산 가운데 390억원이 매출채권이며 재고자산이 25억원 수준이다. 반면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억원 수준에 불과하여 갑작스런 유동성 위기가 닥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을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유동성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가한 부채 200억원 대부분이 단기차입금 증가에서 기인하고 있다. 단기차입금 대부분은 구매자금대출로 하나은행 등의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있으며 이자율은 3.8% ~ 4% 수준이다. 차입금 상황에 대한 갑작스런 압박의 위험은 낮지만 단기차입금의 급격한 증가는 이자비용의 증가로 인해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아울러 현금 등 유동자산이 감소하고 단기차입금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산의 구조가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자산 구조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제표의 변화

▶ 매출의 변화

삼목에스프롬은 2012년에 약 1,459억원의 매출에 68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87억원 가량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약 25억원, 당기순이익은 약 19억원 증가했다.

구분	2012년	2011년	증감(증감율)
매출	145,951	127,224	18,727 (14.72%)
매출원가	123,446	109,497	13,949 (12.74%)
매출총이익	22,505	17,727	4,777 (26.95%)
매출총이익률	15.42%	13.93%	
판매비와관리비	15,686	13,435	2,251 (16.75%)
영업이익	6,819	4,292	2,527 (58.87%)
영업이익률	4.67%	3.37%	
당기순이익	4,988	3,039	1,949 (64.15%)
당기순이익률	3.42%	2.39%	

단위 : 백만원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이익률 역시 1% 가량 증가하는 등 매출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2년 초 알루미늄품의 품귀현상이 발생하면서 임대가격이 급증하는 등 사업 환경이 상당히 우호적이었음을 고려하면 삼목에스프롬의 실적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삼목에스프롬이 알루미늄품 시장에서 업계 1위인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참고로 업계 2위인 금강공업의 2012년 실적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2년	2011년	증감(증감율)
매출	376,903	289,006	87,897 (30.4%)
영업이익	22,519	11,284	11,235 (99.5%)
당기순이익	9,764	2,001	7,763 (387.9%)

단위 : 백만원

옆에서와 같이 업계 2위인 금강공업은 영업이익이 100%, 당기순이익이 거의 400%나 증가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금강공업은 공시를 통해 알루미늄품의 국내 임대 매출, 해외 수출 증가 등의 이유로 2012년의 실적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 배당

삼목에스프롬은 전년대와 동일하게 보통주 1주당 5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며, 현금배당 총액은 약 4.7억원 수준이다.

삼목에스프롬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배당 등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으므로 제1호 의안인 재무제표의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제안한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반대** 의견을 제안함.

- 정관 일부 변경 내용 가운데 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음
- **감사 제도에 같음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일부 변경**
→ 현행 취약한 감사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주주제안에 따라 감사 후보가 제안된 상황에서 감사위원회 도입은 주주의 감사 기능 강화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반대
- **집중투표제 배제**
→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상황이며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이 필요함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경감**
→ 지배구조가 폐쇄적이고 특히 관계회사와 밀접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해 봤을 때, 이사의 책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반대
-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같음**
→ 재무제표의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대신할 경우 사실상 배당 결정에 대한 권한이 주주가 아닌 이사회에 귀속되게 되므로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대

Vote Requirement :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수의 승인

Discussion

Proposal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의 주된 내용

삼목에스폼은 정관 일부 변경을 통해 감사에 같음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정된 상법을 반영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경감,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같음하는 등의 조항 신설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수권발행주식수를 증가하고 자금 조달의 수단을 다양화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주된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변경 내용	비고
수권발행주식수 증가	일천육백만주 → 이천만주	
우선주식 내용 변경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 주식 등 다양화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이사회	이사 정원 변경 (3명 이상 → 3명 이상 6명 이내)	
감사	감사에 같음하여 감사위원회 설치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 승인 가능	
배당	현물 배당제도 도입, 중간배당제도 신설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관 일부 변경 _ 감사위원회 도입

▶ 감사위원회 도입

삼목에스폼은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상근감사 제도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다. 감사위원회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설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제도는 대기업에 대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사회와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삼목에스폼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정관에 추가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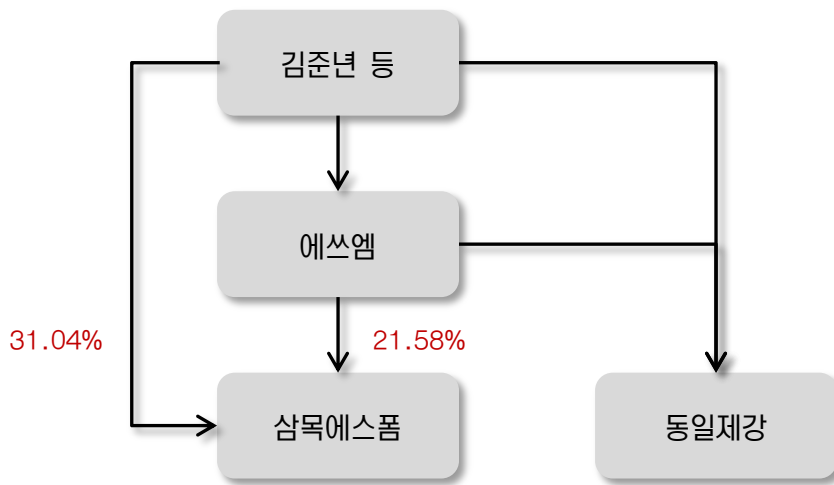
구분	세부 내용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인 자를 위원회를 대표할 자인 위원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위에서와 같이 감사위원회는 그 구성이나 직무에 있어서 상근감사에 비해 한층 강화된 감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감사위원회 제도 자체의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삼목에스폼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감사위원회 도입은 오히려 삼목에스폼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

▶ 삼목에스폼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관계회사와의 밀접한 거래 관계

삼목에스폼의 최대주주는 김준년과 그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준년이 직접 지배하고 있는 에스엠이 보유하고 있는 삼목에스폼의 지분까지 합하면 최대주주인 김준년 등의 지분율은 약 52.62%에 달한다. 그리고 삼목에스폼은 김준년과 에스엠이 직접 지배하고 있는 동일제강을 또한 관계회사로 두고 있다.

에스엠은 2007년 4월 설립되었으며, 주된 사업은 건축토목용 자재를 제조, 판매 및 임가공하는 업체이다. 그리고 동일제강은 1959년 7월 설립되었으며, 2004년 6월 주식회사 삼목과 합병하였다. 동일제강은 PC강선, 아연도 가성, 와이어로프 등 선재류 제조, 판매 및 건설용 거푸집을 생산하여 임대하는 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에쓰엠 주주구성, 2011년 말 기준]

주주	주식수(주)	지분율(%)
김준년	69,000	69
김민정	10,000	10
김은경	10,000	10
김정은	10,000	10
기타	1,000	1
합계	100,000	100

[동일제강 주주구성, 2011년 말 기준]

주주	주식수(주)	지분율(%)
에쓰엠	210,000	42
김준년	80,000	16
김교현	30,000	6
기타	240,000	32
합계	500,000	100

즉, 김준년은 삼목에스폼 뿐만 아니라 에쓰엠과 동일제강이라는 회사를 함께 지배하고 있으며, 삼목에스폼과 에쓰엠, 그리고 동일제강은 건설용 거푸집 및 건축토목용 자재라는 상당히 상호 연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에쓰엠과 동일제강의 최근 실적은 다음과 같다.

구분	에쓰엠			동일제강		
	2011	2010	2009	2011	2010	2009
매출	41,025	38,878	45,646	148,162	154,200	124,940
매출총이익	12,526	12,118	18,397	11,987	11,645	15,905
영업이익	10,492	10,997	17,214	4,043	2,839	4,0675
당기순이익	10,387	10,504	20,965	3,147	4,138	2,2825
총자산	76,282	41,726	32,396	122,724	118,995	111,0765
총부채	5,242	2,730	3,905	48,772	48,189	44,409
자본금	1,000	1,000	1,000	2,500	2,500	2,500

(단위 : 백만원)

삼목에스폼과 마찬가지로 에쓰엠과 동일제강 역시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괄목할만한 것은 바로 에쓰엠의 실적이다. 에쓰엠은 2007년에 약 10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었으나 2011년 말에 총자산 760억원의 알짜회사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400억원 수준의 매출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100억원 상회하고 특히 2009년에는 172억원의 영업이익과 20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기도 했다.

그런데 에스엠과 동일제강, 그리고 삼목에스폼은 상당히 밀접한 매출/매입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삼목에스폼과 에스엠, 그리고 동일제강 사이의 매출/매입 거래는 다음과 같다.

[삼목에스폼, 에스엠, 동일제강의 매출/매입 거래,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매출		삼목에스폼	에쓰엠	동일제강
	매입				
2011	삼목에스폼			16,382	15
	에쓰엠	756			3,822
	동일제강	373		5,589	
2010	삼목에스폼			15,707	13
	에쓰엠	2,666			2,268
	동일제강	1,317		13,265	
2009	삼목에스폼			39,213	5,185
	에쓰엠	903			11,798
	동일제강	1,060		3,990	

위의 표에서와 같이 삼목에스폼과 그 관계회사들의 매출/매입 거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에스엠의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에스엠이 삼목에스폼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시킨 매출이 가장 금액이 크다. 에스엠이 약 450억원의 매출에 209억원의 경이로운 당 기준이익을 달성한 2009년도에는 특히 에스엠이 삼목에스폼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시킨 매출이 컸다.

▶ 에스엠의 매출

에스엠의 매출 및 자산 구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 백만원)

오른쪽 표에서와 같이 에스엠은 삼목에스폼에 대한 매출 거래 규모가 가장 컸던 2009년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매출총이익률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매출을 제품매출과 임가공매출로 분류했을 때 임가공매출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이 50% 수준으로 상당히 수익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구분	2011	2010	2009
매출	41,025	38,878	45,646
제품매출	27,117	18,321	30,143
제품매출원가	22,524	15,635	20,818
제품매출총이익률	16.9%	14.7%	30.9%
임가공매출	13,858	20,557	15,503
임가공매출원가	5,926	11,125	6,431
임가공매출총이익률	57.2%	45.9%	58.5%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렇듯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률을 달성하는 에스엠은 반면에 인건비 등 판매비와관리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유형자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다. 그리고 유형자산 역시 기계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나 건물 등 생산에 필요한 기본 자산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단위 : 백만원)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판매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유형자산의 비중이 낮고 유형자산 역시 토지나 건물 없이 기계장치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률을 달성한다는 점 등 에스엠의 매출에 대해서는 다소 의아한 점들이 발견된다.

구분	2011	2010	2009
판매비와 관리비	2,035	1,121	1,183
급여	921	622	375
총자산	76,282	41,726	32,396
유형자산	2,896	3,486	3,890

▶ 삼목에스품, 에쓰엠, 그리고 동일제강의 공통점

상당히 밀접한 매출/매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삼목에스품과 에쓰엠, 그리고 동일제강에는 여러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선 세 회사의 소재지가 동일하다는 점이다. 삼목에스품과 에쓰엠, 그리고 동일제강은 모두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 446-2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 446-2는 삼목에스품의 안성공장이 위치한 곳이며, 삼목에스품은 기존에 본사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70-3 (시화공장)에서 2010년 7월에 안성공장이 있는 곳으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였다.

다음은 삼목에스품의 임원 구성이다.

성명	직위	등기여부	상근여부	담당 업무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김준년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총괄	7년	2013년 3월
김교현	이사	등기임원	상근	관리	23년	2014년 3월
이영자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4년	2014년 3월
이규환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5년	2013년 3월
김영수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4년	2014년 3월
엄석호	감사	등기임원	상근	감사	25년	2013년 3월

위의 임원 구성은 2012년 9월말 기준으로 삼목에스품의 임원 구성 현황이다.

현재 삼목에스품의 이사회는 총 5인으로,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는 1인으로 엄석호가 맡고 있다. 이사회 5인 가운데 이영자 이사는 김준년 대표이사의 어머니이고, 김교현 이사는 김준년 대표이사의 삼촌이다.

다음은 에쓰엠과 동일제강의 임원 구성이다.

에쓰엠(변경 전)		에쓰엠(변경 후)		동일제강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김준년	대표이사	김준년	대표이사	김준년	대표이사
임범수	대표이사	임범수	대표이사	김익중	대표이사
엄석호	대표이사	김재년	이사	김중기	이사
이영자	감사	김정은	감사	엄석호	감사

참고로 에쓰엠의 임원 변경은 2013년 2월 27일자로 발생하였으며, 엄석호와 이영자가 대표이사과 감사에서 각각 사임하고 김재년과 김정은이 이사 및 감사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동일제강의 김중기 이사는 2012년 3월에 등기가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이영자 이사가 2009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재직하 바 있다.

위의 임원 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삼목에스품의 현 이사/감사 구성은 에쓰엠과 동일제강의 이사/감사 구성과 상당히 중첩되고 있다. 더욱이 경영진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엄석호 감사는 에쓰엠의 대표이사이며, 동일제강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엄석호 감사는 과거 113,090주(약 1.15%)의 주식을 2009년 11월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현재는 13,090주 보유)

그리고 또 하나 세 회사의 공통점은 세 회사 모두 동일한 지배인을 선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법에 따르면 지배인은 상당히 막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확인 결과 삼목에스폼과 에스엠, 그리고 동일제강에는 모두 유성재라는 지배인을 두고 있는데, 삼목에스폼은 2011년에, 에스엠은 2012년에, 그리고 동일제강은 2003년에 선임하였다. 그리고 현 지배인인 유성재 이전에는 세 회사는 모두 정명돈이라는 지배인을 같이 선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명돈은 과거 삼목에스폼에서 등기/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즉, 삼목에스폼, 에스엠, 그리고 동일제강은 김준년이라고 하는 동일한 주체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동일한 위치에 소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중첩되는 임원 구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일한 지배인이 선임되어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세 회사는 상호간에 상당히 빈번한 매입/매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삼목에스폼의 자원과 이익의 분배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사회를 통해 결정될 주요한 경영의 판단들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중립적 감사 선임 주주제안 거부

이러한 삼목에스폼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따라 2013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엄석호 감사를 대신해 중립적 감사 후보에 대한 주주 제안이 있었다. 이에 삼목에스폼 이사회는 최초 2013년 2월 13일 주주총회소집결의를 통해 주주가 제안한 감사 후보자를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였다. 하지만 2013년 3월 14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하면서 이사회는 감사 선임을 위한 정당한 주주제안을 일방적으로 철회하였으며, 상근감사에 갈음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 변경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이사회의 감사위원회 도입 의도는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립적 감사 선임을 요구한 주주제안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정관 변경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주주가 제안한 감사 선임의 의안을 자동으로 폐기되며, 회사가 제안한 감사위원회위원에 대해서만 표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주주 제안이 무력화 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한 주주제안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입되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삼목에스폼의 지배구조는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으며, 폐쇄적 경영으로 인해 자원과 이익 분배에 있어서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그러므로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부결되어야 한다.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관 일부 변경 _ 그 외의 내용

▶ 집중투표제 배제

삼목에스폼은 기존에도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집중투표제란, 소액주주권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로써,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한다면, 1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3개의 의결권을 부여 받게 되며, 주주는 3개의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고 표결을 통해 최다수를 얻은 이사 후보부터 순차적으로 선임되게 때문에 소액주주는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거나 최대주주가 내세운 후보 가운데 문제가 있는 이사의 선임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이다.

삼목에스폼과 같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최대주주의 의지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으므로 집중투표제와 같은 제도는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삼목에스폼과 같이 지배구조가 폐쇄적이고 최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관계회사와 밀접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한다.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경감

삼목에스폼은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업금지, 회사기회유용금지, 자기거래금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 경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지만,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러한 이사의 고의나 중과실을 실질적으로 밝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관 조항의 신설은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삼목에스폼과 같이 최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관계회사와 밀접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이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경감 제도는 마땅히 부결되어야 한다.

▶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

삼목에스폼은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결의로 승인하던 것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을 예고했다. 하지만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권을 이사회가 가지게 될 경우 배당에 대한 결정 권한을 주주가 아닌 이사회가 갖게 되므로 주주가 회사에 대해 배당 등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삼목에스폼과 같이 최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이 주주 전체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또한 부결되어야 한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반대** 의견을 제안함.

- 사내이사 후보 김준년 재선임 반대
→ 삼목에스폼과 김준년이 소유하고 있는 에스엠 등 관계회사와의 밀접한 거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삼목에스폼 자원과 이익 분배의 왜곡 등이 우려됨
- 사외이사 후보 명재원 신규선임 반대
→ 삼목에스폼 이사회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대주주인 김준년과 학연이 겹치는 명재원 사외이사 후보가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사외이사 후보 하우성, 임완순 신규선임 찬성
→ 하우성, 임완순 후보에 대해 주어진 정보가 충분하지 않지만, 이사회의 추천을 존중하여 찬성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사내이사 이영자는 김준년의 어머니이고 김교현은 김준년의 삼촌, 김준년은 설립자인 아버지 김용현이 사망하면서 회사를 물려받은 2세 경영자. 즉, 삼목에스폼 이사회는 전형적인 가족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어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Vote Requirement : 참석주주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수의 승인

Discussion

Proposal

▶ 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후보자 세부 내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이사	김준년	74.04.25	2	재선임	삼목에스폼(주) 대표이사	삼목에스폼(주) 대표이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사외이사	하우성	58.01.13	2	신규선임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대표이사	새시대회계법인 고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사외이사	명재원	74.09.16	2	신규선임	한영회계법인 감사본부	도원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사외이사	임완순	55.09.21	2	신규선임	동남회계법인 대표이사 신도리코 감사	동남회계법인 이사, 회계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투명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삼목에스프의 이사회

▶ 사내이사 후보 김준년 재선임 반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목에스프는 관계회사인 에쓰엠, 동일제강과 상당히 밀접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이들 회사들 사이의 핵심 연결 고리는 실질적인 소유주 김준년이다. 김준년은 삼목에스프, 에쓰엠, 동일제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세 회사에서 모두 대표이사로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 회사들간의 거래가 과연 합리적이었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

이 경우 만약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이익을 충돌하는 경우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고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의사결정을 할 위험성이 높다. 이사의 행위에 대한 사외이사나 감사의 견제 및 감시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할 때는 더욱 그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사회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김준년 사내이사 후보의 재선임은 부결되어야 한다.

▶ 사외이사 후보 명재원 신규선임 반대

삼목에스프는 폐쇄적인 지배구조로 인해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감사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가운데 명재원은 최대주주인 김준년과 학연이 중첩되고 있다. 명재원과 김준년은 둘 다 1974년생이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명재원 후보가 독립성을 유지하며 사외이사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재원 사외이사 후보의 신규선임은 부결되어야 한다.

▶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

현재 삼목에스프의 사내이사 3인 가운데 김준년은 회사의 설립자인 김용현의 아들(子)로서 김용현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아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했으며 2009년 3월에 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이영자는 김준년의 어머니(母)로 2009년 3월에 김준년과 함께 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김교현은 설립자인 김용현의 형제로서 오랫동안 회사에 재직하면서 과거에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이와 같이 삼목에스프의 이사 구성이 여전히 가족기업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목에스프가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 보다 위대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사외이사 후보 하우성, 임완순 신규선임 찬성

하우성, 임완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공시 등을 통해 제공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지만, 이사회의 추천을 존중하여 찬성할 것을 권유한다. 다만, 하우성, 임완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사외이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권유 의견은 바뀔 수 있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안함.

- 감사위원회 설치가 지배구조의 폐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회 설치 반대의 연장선에서 감사위원회 감사 후보 전원에게 반대 의견 권유

Vote Requirement : 참석주주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수의 승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Discussion

Proposal

▶ 감사위원회 감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감사 후보자 세부 내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 여부	사외이사 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감사 위원	하우성	58.01.13	2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대표이사	새시대회계법인 고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감사 위원	명재원	74.09.16	2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한영회계법인 감사본부	도원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감사 위원	임완순	55.09.21	2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동남회계법인 대표이사 신도리코 감사	동남회계법인 이사, 회계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Analysis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전원 반대

▶ 감사위원회 감사 후보 전원 반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립적 감사 선임을 요구하는 정당한 주주제안을 회피하고,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삼목에스프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 반대의 연장선에서 감사위원회 감사 후보자 전원에게 반대 의견을 권유한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삼목에스프의 이사 총수는 전년에 5명(사외이사 2명 포함)에서 6명(사외이사 3명 포함)으로 증가할 예정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이지만 보수총액의 한도는 전년과 동일한 10억원
- 2012년 9월말까지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은 약 2.1억원 수준으로 이사 보수한도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으므로 찬성할 것을 권유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개별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나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보수의 책정과 지급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

Vote Requirement : 참석주주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수의 승인

Discussion

Proposal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5(2)	6(3)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1,000,000,000	1,000,000,000

Analysis

이사 보수 지급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필요

▶ 이사 보수 지급 체계의 불투명

삼목에스프의 최근 사업연도의 이사 수와 보수한도액, 그리고 실제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1	2012	2013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5 (2)	5 (2)	6 (3)
보수총액/최고한도액	한도액 4억원	한도액 10억원	한도액 10억원
실제 지급액 (단위:천원)	271,164	209,644 (9월말 기준)	(예정)

위의 표에서와 같이 보수 한도액과 실제 지급액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으므로 금번 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제안한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제안한다. 다만 임원의 보수는 주주가 임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므로 개별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와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 그리고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삼목에스프의 지배구조가 최대주주 중심으로 폐쇄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가 제안한 독립적 감사 후보자 및 감사 보수한도에 대해 찬성 의견을 권유함

Vote Requirement : 참석주주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수의 승인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보통결의)

Discussion

Proposal

▶ 감사 선임의 건

[감사 후보자 세부 내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 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상근 감사	이관영	63.04.16	3	신규선임	재중국 서릉상사 총경리 영진무역 대표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220,000,000	220,000,000

Analysis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 기능 강화

▶ 감사 기능 강화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목에스프의 지배구조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상근감사인 엄석호 역시 김준년이 지배하고 있는 개인회사 에스엠, 동일제강에 대표이사 및 감사로 재직한 경력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감사 기능을 강화해 이사회를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상근감사 후보자 이관영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권유한다. 단, 이관영 감사 후보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감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권유 의견은 바뀔 수 있다. 아울러 감사 선임의 건이 가결될 경우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 찬성을 제안한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네비스탁의 독립적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의견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견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의 권고 및 신용평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의 내용은 네비스탁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네비스탁이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네비스탁은 본 보고서를 포함한 기타 자료, 정보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를 포함한 네비스탁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네비스탁의 소유입니다.

㈜네비스탁

www.navistock.com